

##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한 포커스집단 연구

이 시 연

(서울장신대학교)

최 윤 정

(광주대학교)

권 현 진

(장로회신학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음주 관련 상황을 탐색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포커스집단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음주 관련 상황은 술 마시는 이유, 술 마시지 않는 이유, 음주 상황, 첫 음주 경험 등 4개의 상위 범주로 분류되었고, 16개의 하위 범주와 93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제시된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 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가족 영향, 또래 영향, 교사 영향, 술에 대한 사회적 태도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건강 상태, 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모감독, 경제적 상황, 술 구입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상황은 가족 상황, 학교, 또래 모임으로 나타났다. 넷째, 첫 음주 동기는 어른의 권유와 또래 모임, 음주 장소는 집, 공공장소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위한 실천적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청소년 음주 예방, 음주 상황, 포커스집단

### 1. 서 론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음주가 금지되고 있지만 이는 명시적인 규제일 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음주를 할 수 있는 상황들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 음주는 성인 음주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서 언급되고 있다. 청소년 음주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약물 중독, 폭력, 자살, 성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제시되고 있다(김용석, 1999a; 김현수·김현실, 2002; Windle, 1999). 이렇듯 부정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음주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문화체육부, 2004), 처음 음주를 경험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한성현·한동우, 2001). 캐플로우 등(Kaplow, Curran, Angold, and Costello, 2001)은 음주 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음주문제를 가질 위험이 많아지고 공격성, 학교 실패, 비행과 같은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15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하는 경우 알코올 의존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Grant, 1998). 따라서 청소년 음주의 증가와 저연령화 현상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슈이다. 술은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음주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요구한다. 특히, 청소년 음주는 미래의 성인 문제음주자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청소년 음주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문제음주자의 증가를 의미하고, 심각한 사회문제의 도출과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어진다. 이러한 청소년 음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1차적인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 음주관련 연구들에서 예방에 관련하여 진행된 실증적인 연구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청소년 음주관련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청소년 음주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는 연구(조성기, 2001; 한성현·한동우, 2001;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나, 외국의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변수를 선정하고 양적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형성하였다(김용석, 1999a, 1999b; 장승옥, 2000; 김용석·윤혜미, 2001; 김용석·김정우·김성천, 2001).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어떠한 음주기대를 가지고 술을 접하게 되는지, 음주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논리 실증주의에 근거하여 객관적 실재를 가정하고 외부자적인 관점에서 연역적으로 이론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는 양적 연구들은 특정한 요인들이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있으나,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변수들을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외국의 선행연구에 기반 한 변수선정은 한국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이 배제되는 경우를 발생시키고, 비슷한 변수선정과 연구방법으로 인해 연구 결과도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듯 연역적이고 수량화된 양적연구만으로는 선행연구들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요인들을 알아내거나, 한국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음주관련요인을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음주 상황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만의 독특한 음주문화와 술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인식을 알아보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청소년들만의 음주상황이나 경험 등을 포커스집단을 이용하여 내부자적인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지속적인 비교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청소년들이 국내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처음 술을 접하게 되고, 어떠한 요인들이 이를 독려하고 촉진하는지, 술을 마시지 않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

지를 사회적 맥락의 한 부분에서 이해하고 탐구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를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 음주에 관련된 연구를 국회전자도서관의 석·박사 논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음주를 색인으로 넣었을 때 제시된 논문의 수는 74개로서 1980년도 초에 비행과 음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1990년대 말까지는 16편의 논문이 제시되었고 2000년 이후 58편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총 74개의 논문 중에서 박사 학위논문이 2편이고 나머지 72편은 석사 학위논문으로 아직 이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진 것이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음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음주와 관련된 요인들을 단편적으로 알아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청소년 음주 예방에 관련된 논문은 단 1편으로 그 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김사라, 2002). 이는 아직까지 청소년 음주에 관련된 연구내용들이 예방보다는 사후 치료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도 기존의 외국 문헌들에서 제시한 음주관련 요인들을 기반으로 양적인 조사를 실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원인을 다각도로 파악하거나 아니면 밝혀지지 않은 원인들을 찾아내는 데에 있어서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밝혀지지 않은 청소년 음주 관련요인들이나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관련된 요인이나 한국적인 사회 환경에 관련된 심도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음주에 관련되어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논문은 검색되지 않음에 따라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주로 양적연구에 치우쳐 있다.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음주에 관련되어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 음주실태에 관련하여 기술적인 수준에서 분석을 한 연구들이 있다(조성기, 2001; 한성현·한동우, 2001;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기술적인 분석에서 나아가 청소년 음주 관련 요인을 개인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사회적 자원, 인지적 요인 등과 같이 다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했던 연구들도 있다(최정아, 1998; 장승욱, 2000; 김용석 외, 2001). 그러나 이 연구들도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청소년 음주 관련 요인들에 한정되어 고찰하고 있다.

이 외의 연구들로는 청소년 문제성 음주와 정신증상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김용석, 1999a), 청소년 음주에 관한 부모와 친구의 영향에 관한 연구(김용석, 1999b), 음주와 비행행동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김현수·김현실, 2002), 음주기대와 음주기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윤혜미·김용석·장승욱, 1999; 김용석·윤혜미, 2001) 등이 있다.

연구방법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이 기존의 통계자료를 사용하거나 대규모 서베이를 통한 양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실증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윤혜미 외, 1999; 장승욱, 2000; 김용석 외,

2001; 조성기, 2001; 한성현·한동우, 2001; 김현수·김현실, 2002). 청소년 음주관련 실태를 기술적인 통계를 통해 단순하게 기술하거나, 관련 요인들 간의 단순상관관계나, 회귀분석을 통해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통계적인 분석에 의존하는 양적 중심의 연구들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숨어 있는 관련 변인을 알아내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 음주에 관련된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되어 귀납적인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알려지지 않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부터 연역적인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관련 변수들의 실증적인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된 요인들 간의 관계성을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 제 3의 변수들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종적 연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문제음주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검증하고 관련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청소년 음주와 관계성이 높은 관련 요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McDermott, 1984; Hundelby and Mercer, 1987; Zuckerman, 1987; Bray, Adams, Getz, and Stovall, 2001; Webb, Bray, Getz, and Adams, 2002; Bjarnason, Andersson, Chooquet, Elekes, Morgan, and Rapinett, 2003), 청소년 음주를 매개하는 제 3의 변수에 관한 연구(Stice, Barrera, and Chassin, 1998), 청소년 음주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Hawkins, Catalano, and Miller, 1992; Scheir and Botvin, 1998; Costa and Turbin, 1999; Makini, Hishinuma, Kim, Carlton, Miyamoto, Nahulu, Johnson, Andrade, Nishimura, and Else, 2001), 청소년 음주와 또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연구(Lonczak, Huang, Catalano, Hawkins, Hill, Abbott, Ryan, and Kosterman, 2001), 청소년 음주 예방에 관한 연구(Dielman, 1994; Schulenberg, O'Malley, Bachman, Wadsworth, and Johnston, 1996; Wynn, Schulenberg, Kloska, and Laetz, 1997) 등이 있다.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는 앞서 제시했던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양한 통계방법을 활용한 양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편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지는 새로운 관련요인들을 찾아내고, 연령과 성과 경제적인 상황, 인종, 또래요인 등에 따라 관련요인들의 관계성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을 수 있음에 초점을 두는 질적연구가 진행되었다(Emery, Ritter-Randolph, Strozier, and McDermott, 1993). 또한 종적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 음주와 가족력(Grant, 1998), 학교, 동료, 종교와의 관계성(Curran and Chassin, 1997; Mason and Windle, 2000),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Dielman, Shope, and Butchart, 1989; Shope, Kloska, Dielman, and Maharg, 1994)을 연구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우 대규모 서베이를 통한 양적조사가 연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연구의 경우는 청소년 음주 실태나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예방프로그램들을 소개하거나 평가한 연구들도 있고 질적연구, 종적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은 청소년 음주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음주라는 것은 문화, 신념, 사회적인 환경 등

그 나라만의 독특한 상황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외국의 연구들은 단지 하나의 참고 일 뿐 검증 없이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3. 연구 방법 및 설계

#### 1) 포커스집단 연구방법

청소년의 음주 상황을 탐색하고 음주예방을 위한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 목적에 따라 포커스집단(Focus Group)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포커스집단은 질적 연구방법에 있어서 가장 실용적이고 성공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Capko and Anwar, 1998). 포커스집단 연구방법은 표적인구의 하위집단을 대상으로 의식적, 반의식적(semiconscious), 무의식적인 심리적 및 사회문화적 특성과 과정에 대하여 학습하는 질적인 접근법이다(Basch, 1987). 포커스집단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그들의 인식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포커스집단을 통해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경험을 이끌어내도록 촉진한다(Ford, Bach, and Fottler, 1997).

포커스집단 연구방법은 마케팅 연구와 건강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고 최근에는 사회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확산되고 있다(김성재·김후자·이경자·이선옥, 2000). 그러나 국내의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포커스집단이 서베이 질문지나 실험연구의 연구문제를 개발하는 연구의 예비적인 기능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포커스집단 면접을 통해서 가설 개발을 하고 다른 유형의 연구로 검증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Stewart and Shamdasani, 1990). 그러나 포커스집단 연구방법이 이러한 역할로 제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연구 주제에 따라서 포커스집단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경우도 있다(김성재 외, 2000). 특히, 포커스집단 연구방법의 강점은 연구 참여자들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들으면서 그들의 경험과 견해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Morgan, 1998). 따라서 청소년의 음주상황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있어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소집단 형태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포커스집단 연구방법은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포커스집단이 특정 영역의 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용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정교하게 계획되어야 한다(Krueger, 1994). 이에 본 연구는 포커스집단 연구의 전형적인 과정(Morgan, 1998)에 따라서 진행하였다. 즉, 연구 계획 → 연구 참여자 모집 → 포커스집단 진행 → 분석 → 보고서 작성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 2) 자료수집 과정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3명의 연

구자<sup>1)</sup>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연구팀은 포커스집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포커스집단에 관한 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팀은 연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포커스집단 진행, 분석,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월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반구조화된 면접 지침서를 활용하는 면접지침방법(interview guide method)을 사용하였다. 연구팀은 문헌검토를 통해서 면접 지침서를 개발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는 목적적 표집 방법<sup>2)</sup>을 사용하였다. 연구팀은 청소년 관련 단체에 연구 참여자에 대한 모집을 의뢰하였고 이를 허락한 2개의 기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자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2개의 포커스집단을 구성하였다. 효과적인 집단 간 비교를 위하여 각 집단은 서로 다른 지역(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청소년들이 포커스집단에서 음주 상황에 대하여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년, 거주 지역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했고, 또래집단을 활용하여 친숙 정도를 고려한 집단 구성을 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음주상황을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남녀 비율을 고려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및 음주 관련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위 기준에 부합하는 총 17명을 선정하였고, 연령은 16세에서 19세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포커스집단을 진행할 때 토의 내용이 반복되는 ‘이론적 포화’(Morgan, 1998)가 나타났기 때문에 2개의 포커스집단 면접으로 자료수집을 마무리하였다.

연구팀은 주 진행자 1명과 보조진행자 2명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포커스집단을 실시하기에 앞서 진행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역할극을 실시하였다. 각 포커스집단에서는 면접을 시작할 때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녹음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에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팀의 주 진행자는 면접 지침서에 따라 포커스집단을 진행하였고, 보조진행자 2명은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 반응에 대한 기록과 녹음을 관리하였다. 각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집단 별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였고, 모든 포커스집단 면접 과정은 녹음되었다. 또한 녹음 자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보조진행자들은 각자 현장노트를 기록하였다.

- 1) 본 연구팀은 청소년, 음주문제, 질적 연구방법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박사급 연구원으로 구성하였다.
- 2) 포커스집단 연구는 연구주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 참여자를 선택하며, 패턴(Pattern, 1990)은 이를 “정보가 풍부한 대상”이라고 명명했다.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 마찬가지로 포커스집단은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참여자를 선정한다(김성재 외, 2000). 이에 본 연구는 포커스집단에서 연구 참여자 선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연구팀은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청소년 집단을 목적으로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 본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연구 참여자를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에 관한 사항

| 집단<br>구분 | 연구<br>참여자 | 학년 | 성별 | 나이 | 최초음주<br>시기(학년) | 음주빈도             |
|----------|-----------|----|----|----|----------------|------------------|
| A        | 1         | 고1 | 남  | 17 | 중              | 10회/년            |
|          | 2         | 고1 | 남  | 17 | 중2             | 10회미만/년          |
|          | 3         | 고1 | 남  | 17 | 중              | 10회/년            |
|          | 4         | 고1 | 여  | 17 | 중2             | 고교진학 후 마시지<br>않음 |
|          | 5         | 고2 | 여  | 17 | 중1             | 4회/년             |
|          | 6         | 고1 | 여  | 17 | 중              | -                |
|          | 7         | 고2 | 여  | 17 | 중3             | 15회이상/년          |
|          | 8         | 고2 | 여  | 18 | 고1             | 10회이상/월          |
|          | 9         | 고1 | 여  | 16 | 중1             | 1회/월             |
|          | 10        | 고2 | 여  | 18 | 중2             | 4회/월             |
| B        | 11        | 고2 | 남  | 18 | 고1             | 10회/년            |
|          | 12        | 고2 | 남  | 17 | 중              | 3회/년             |
|          | 13        | 고2 | 남  | 18 | 중3             | 10회/년            |
|          | 14        | 고2 | 남  | 18 | 고2             | 1회/년             |
|          | 15        | 고2 | 남  | 18 | 고1             | 10회이상/년          |
|          | 16        | 고2 | 여  | 19 | 4세             | 4회/월             |
|          | 17        | 고2 | 여  | 18 | 초등4,5          | 4회/월             |

### 3)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 방법은 포커스집단 면접을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를 텍스트로 필사하여 이를 원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팀은 녹음 내용과 필사된 녹음자료를 반복하여 비교·검토하였고, 비언어적인 메시지와 같은 면접 동안 이루어진 기록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집단 연구방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자료분석 방법 중 하나인 글래서와 스트라우스(Glaser and Strauss, 1967)의 지속적인 비교 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and Corbin, 1990)이 지속적인 비교방법의 첫 번째 단계로 제시한 개방코딩을 자료분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개방코딩 이후 단계는 자료에 대한 근거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이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문제에 관련된 주제를 개념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코딩 이후의 단계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개방코딩은 포커스집단 자료분석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Emery et al., 1993).

개방코딩은 자료가 나타내는 개념이나 현상에 대하여 자료의 각 단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개념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범주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각 범주에 이름을 붙이고 모든 자료의 단위가 적절한 범주 내에 정확하게 위치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다(Strauss and Corbin, 1990).

본 연구에서 3명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단계를 각각 독립적으로 필사본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팀은 개념의 추출과 범주화 작업에 있어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코딩 과정을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 4) 타당도/신뢰성 검증

포커스집단 연구에서는 연구자료의 질과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체계화된 절차를 갖는다(김성재 외, 2000). 포커스집단 면접 동안 자유롭고 개방된 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커스집단의 토의 주제와 진행에 적합한 진행자를 선정하고, 연구 참여자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확인 및 교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포커스집단 진행자는 청소년 집단활동 경험이 가장 풍부한 연구자가 담당하였다. 또한 면접 시작 전에 연구팀과 연구 참여자들이 다과를 함께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눔으로써 개방적인 토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둘째, 3명의 연구자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교차검증을 통한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시도하였다. 즉, 연구팀이 함께 면접 지침서를 개발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면접 지침서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아울러 정확한 녹취를 위하여 필사본에 대한 상호간에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고, 개념 추출, 범주화 등 자료처리과정에 있어서 각자 코딩을 한 후에 합의에 이르기까지 코딩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다른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반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설계에서 자료분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록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의 전개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 4. 연구 결과 및 해석

청소년 음주 관련 상황과 관련된 개념이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스트레스 등 총 93개로 개념화되었고, 이를 유사한 개념으로 묶어서 16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음주 관련 상황은 술 마시는 이유, 술 마시지 않는 이유, 음주 상황, 첫 음주 경험 등 4개의 상위 범주로 나타났다.



〈표 2〉 청소년의 음주 관련 상황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

| 상위 범주       | 범주           | 개념   |
|-------------|--------------|--|
| 술 마시는 이유    | 개인의 심리적 상태   | 스트레스, 슬픔, 속상함, 강박적 사고, 기분 좋음, 폼 잡음, 어른과 동일시  |
|             | 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심리적 위안, 스트레스 해소, 자기개방 촉진, 인간관계 확대, 친밀해짐, 정신건강 유익, 신체건강 유익, 실수만 없으면 좋은 것임                             |
|             | 가족 영향        | 부모 음주, 부모 음주 승인, 부모 음주 권유, 부모 무관심, 친척 음주 권유, 형제 음주, 술심부름   |
|             | 또래 영향        | 친구 음주, 친구 음주 권유, 선배 음주 권유, 친구관계 유지, 청소년 음주의 보편화, 게임 벌칙   |
|             | 교사 영향        | 교사 음주, 교사 음주 승인, 교사 음주 권유  |
|             | 술에 대한 사회적 태도 | 청소년 음주 허용, 청소년 술심부름 허용, 술 구입 용이성, 술집 이용이 쉬움, 어른에게 술 배우기, 어른의 술 권유에 대한 복종, 술 중독성에 대한 무지, 술에 긍정적인 대중매체 |
| 술 마시지 않는 이유 | 개인의 건강 상태    | 속이 안 좋음, 속쓰림, 술을 못함  |
|             | 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건강 위해, 질병 걸림, 속쓰림, 일상생활 지장, 숙취에 의한 늦잠, 구토, 노상방뇨, 술주정, 싸움, 부모님 꾸중, 부모 술주정, 기억 안남                      |
|             | 부모감독         | 엄마 금주권유, 당일 귀가, 부모 교육  |
|             | 경제적 상황       | 돈 없음   |
|             | 술 구입의 어려움    | 신분증 검사, 술 구입 실패  |
| 음주 상황       | 가족 상황        | 잔치, 식사   |
|             | 학교 상황        | 수학여행, 수련회  |
|             | 또래 모임        | 동아리활동, 친목모임, 단합모임, 소개팅, 술파티, 생일, 여행, 시험 끝난 후, 연초나 연말, 크리스마스  |
| 첫 음주 경험     | 음주 동기        | 부모 권유, 할머니 권유, 선배 권유, 친구모임, 놀러가서, 이성친구와 헤어짐, 호기심, 목마름, 친구 집에 술이 있어서                                  |
|             | 음주 장소        | 집, 할머니 집, 친구네 집, 수련회, 노래방, 공터, 빈집, 야외, 야영지, 술집   |

### 1) 술 마시는 이유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 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가족 영향, 또래 영향, 교사 영향, 술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의한 것으로 범주화되었다.

### (1) 개인의 심리적 상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는 스트레스, 슬픔, 속상함, 강박적 사고, 기분 좋음, 폼 잡음, 어른과 동일시로 개념화되었다. 기분이 좋을 때 술을 마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슬프고 속상할 때 술을 마신다고 하였다.

**솔직히 청소년도 인간인데 스트레스 안 받을 순 없잖아요**

**(기쁠 때보다는 나쁠 때) 솔직히 청소년은 술을 그러라고 먹는 거라고 봐야 돼요**

또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과 달라 술을 많이 마시게 된다고 하였다.

**보통 사람들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거나 이걸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일도 아닌데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뒤집어 파고 후벼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점은 불안과 우울이 음주 시작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케플로우 등(200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김용석(1999a)은 불안, 우울, 적대감, 강박 증상 등 정신 증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성 음주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가 음주를 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그냥 폼 잡음이라고' 술을 마시고, 어른들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술을 마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어른들이 기분 나쁘면 담배 피고 술 먹는 댕잖아요, 어른들의 문화를 따라하는 거죠**

요약하면,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해결방법으로 음주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인의 행동을 모델링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2) 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범주에는 심리적 위안, 스트레스 해소, 자기개방 촉진, 인간관계 확대, 친밀해짐, 정신건강 유익, 신체건강 유익, 실수만 없으면 좋은 것임 등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청소년들은 술을 마심으로 인해 심리적 위안을 얻으며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술로 인해 자기개방이 촉진되고 인간관계가 확대되는데 도움이 되며 친구들과의 친밀감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최정아, 1998; 한성현·한동우, 2001), 청소년 음주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음주기대이다. 즉, 음주가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켜 준다고 믿을 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음주를 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제시한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 기술이 없다면 음주는 지속되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것이 음주 동기로 입증되었다.

### 먹을 때는 심적 위안을 받는다든지

#### 몰랐던 것을 새로이 알게 되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에 대해서

아울러 청소년들은 술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유익하며 술을 마시고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술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 술은 조금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데... 정신 건강에 좋다

#### 나쁘게 행동만 안하면 저희가 술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청소년들의 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높일 수도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강요에 의해서 음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긍정적인 기대로 음주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최정아, 1998).

### (3) 가족 영향

가족 영향은 부모 음주, 부모 음주 승인, 부모 음주 권유, 부모 무관심, 친척 음주 권유, 형제 음주, 술심부름으로 개념화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Hawkins et al., 1992; Stice et al., 1998), 청소년 음주는 가족 특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 음주, 부모 음주 승인, 부모 음주 권유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게 된 이유로 나타났다. 부모 음주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이유와 마시지 않는 이유의 범주 모두에서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빠가 (소주)일곱 병까지 마시는 거 봤어요, 근데도 조금도 변하는 게 없어요, 얼굴 조금 빨개졌어요

저도 엄마랑 술 먹어봤거든요, 근데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 부모님이 주셔가지고, 그냥 그냥따라 주신 거 같은데, 아버지가 소주 주시고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과 따뜻함의 감소가 청소년의 음주와 약물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제행동과 관련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Windle, 1999)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청소년이 술을 마시게 하는 그 자체가 부모한테 더 책임이 있다고 봐요...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책임과 관심과 그런 기대를 계속 주고 그러면 자식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한 조부모의 권유와 형제의 음주도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게 된 이유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부모나 친척의 술심부름을 한 경험이 있었다.

어른들도, 친척들 모이셨을 때 저한테 시키는 경우 있어요. 예전부터 꾸준히. 초등학교부터 했어요

어릴 때 되게 많았다가 뜸했다가 지금 와서 또 시켜요

가족의 영향에서 주목할 점은 부모나 친척의 음주 권유와 술심부름으로, 이는 외국의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사회의 음주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개념들이다.

#### (4) 또래 영향

또래 영향의 범주에는 친구 음주, 친구 음주 권유, 선배 음주 권유, 친구관계 유지, 청소년 음주 보편화, 게임 벌칙 등의 개념이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김용석 외, 2001; 한성현·한동우, 2001; Mason and Windle, 2000; Sieving, Perry, and Williams, 2000), 청소년 음주는 또래 관련 요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친구의 음주와 친구나 선배의 음주 권유, 친구관계 유지를 위하여 술을 마시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거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 마시니까 그냥 따라서 먹는 거죠. 그 친구가 언제부터가 예전부터 먹던 친구보다 더 잘 먹게 되고 그래요

#### (술 안마시는 사람은) 왕따

또한 청소년 음주는 또래 간에 보편적인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음주는 게임의 벌칙으로도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이) 잘 마신다기보다는 일반화 되어있어요

고등학교 되서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학년이 높아지면 아무 이유 없이 먹는 경우도 많아요

게임 하면 이따만한 잔에 주고 안 먹으면 뭐 해라해라 하면 다 해야 하니까

(5) 교사 영향

교사 영향의 범주는 교사 음주, 교사 음주 승인, 교사 음주 권유 등의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청소년들이 교사 음주 행위를 보게 되고, 교사가 청소년들의 음주를 승인하며 권유하기까지 하는 상황은 외국의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사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와 같은 학교 행사에서 청소년의 음주를 승인하거나 권유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교사에 따라서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이 없는 것도 발견되었다.

수학여행 때는 못 먹는 애들은 제발 주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먹어라, 아예 자리를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술 마시다) 걸려도 뭐라고 안 해요

또한 청소년들은 좋은 선생님은 술 마시는 것을 허용하고 사 주기까지 하는 교사로 표현하였다.

좋은 선생님은요 자기가 사줄 때도 있고 엄격한 선생님은 제재하시고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음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 태도도 발견할 수 있다.

(6) 술에 대한 사회적 태도

술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청소년 음주 허용, 청소년 술심부름 허용, 술 구입 용이성, 술집 이용이 쉬움, 어른에게 술 배우기, 어른의 술 권유에 대한 복종, 술 중독성에 대한 무지, 술에 긍정적인 대중매체 등의 개념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의 술 구입과 술집 이용이 쉽다는 점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현행법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들은 '악아 보이는 애들'이 가게에 가서 술을 사거나 주민등록증의 출생년도를 고쳐서 술을 사기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주 이용하는 단골 술집이 있거나 친구 집에 가면 냉장고나 찬장 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대부분 술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술집 같은데 가면 청소년들을 받아주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호프집 같은데 요즈음은 다 받아주니까 그런데 가서 당당하게 먹거든요

청소년들은 어른에게 술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른의 술 권유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술은 어른이 줬을 때 먹어도 된다고 봐요, 그건 가장 잘 배우는 거예요

또한 청소년들은 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대중매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담배는 중독성인데요 술은 중독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하루에 소주 한 잔 먹고 자면 좋대요

## 2) 술 마시지 않는 이유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건강상태, 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모 감독, 경제적 상황, 술 구입의 어려움으로 범주화되었다.

### (1) 개인의 건강상태

개인의 건강상태는 속이 안 좋음, 속쓰림, 술을 못함이라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청소년이 음주를 하게 되는 기질적, 심리적, 신체적 요인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장승옥, 2000; 김용석 외, 2001; Bray et al., 2001; Webb et al., 2002). 그러나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나 아예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술 마시는 것을 자제한다고 하였다.

속이 안 좋을 때

술을 못해요

(2) 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념으로는 건강 위해, 질병 걸림, 속쓰림, 일상생활 지장, 숙취에 의한 늦잠, 구토, 노상방뇨, 술주정, 싸움, 부모님 꾸중, 부모 술 주정, 기억 안남 등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긍정적인 음주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과음의 경향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음주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음주를 절제함으로써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였다(김금희·박상학, 1996). 본 연구결과에서도 부모의 술 주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술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행동은 청소년들이 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꼬장 부리는 거 많이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했고**

또한 청소년들은 술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나, 일상생활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술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음주를 건강에 유해하고 위험하며,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낮은 나이에 음주를 시도하고 친구의 음주 권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eefe, 1994; Brody, Flor, Hollett-Wright, McCoy, and Donovan, 1999; 김영미, 2004에서 재인용).

**술 마시고 다음날 힘들고 생활에 지장주고 몸도 나가고**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것, 술배**

**아침에 일어나면 속 쓰리고 돈 아까운 것**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음주에 대한 인지 유형은 이미 아동기 때부터 가정, 학교에 대한 유대와 학습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Brody et al., 1999; 김영미, 2004에서 재인용). 따라서 성장과정에서 술에 대한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양면성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청소년 음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부모감독

부모감독에서 제시된 개념으로는 엄마 금주권유, 당일 귀가, 부모 교육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부모 감독이 많을수록 음주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Baer and Bray, 1999; Griffin and Botvin, 2000; Bray et al., 2001; Webb et al., 2002), 청소년 자녀의 음주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둔 학생일수록 금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김용석, 1999b). 본 연구에서도 엄마가 금주를 권유하거나 당일 집에 귀가해야 하는 경우 혹은 부모에게 금주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

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엄마도 먹지 말라고 하고

### 당일날 집에 들어가야 할 때

### 집에서 교육을 철저히 받았거나

따라서 부모 감독은 청소년의 음주 행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 (4) 경제적 상황

경제적 상황에서 도출된 개념은 돈 없음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경제적인 상태와 음주와의 관계성에 대해 뚜렷하게 논의하고 있지 않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아직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음주행위와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돈이 없을 때 음주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 돈이 없을 때

#### (5) 술 구입의 어려움

술 구입의 어려움에서 제시된 개념은 신분증 검사, 술 구입 실패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Bjarnason et al., 2003), 국가의 술 판매 형태와 과도한 술 소비가 가능한 사회구조가 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술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음주동기가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 술을 못 사면

저번에 갔는데, (술을)다 시켰거든요. 저희보고 그것(신분증) 좀 줘 보래요. 83보다 너무 어려보인대요, 그래서 기본 다운 되가지고 시킨 것만 먹었어요

위에서 제시한 예문처럼, 술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경우 청소년 음주행위는 감소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술을 구입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매우 쉽게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3) 음주 상황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상황은 가족 상황, 학교 상황, 또래 모임으로 범주화되었다.

#### (1) 가족 상황

가족 상황에서 제시된 개념은 잔치, 식사였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처음 술을 접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손쉽게 음주할 수 있는 상황들에 노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할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잔치를 열었어요... 그날요... 초등학교 4학년때.. 일주일 내 먹었어요**

**그날따라 주고 싶으셨는지 아버지가 식사 중에**

안경선(1996)은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음주기대에 부모 음주태도가 많은 영향을 주며, 부모의 행위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승인하는 태도에 의한 강화가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에게 있어 담배와 달리 술은 매우 허용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청소년들이 음주 시기가 빨라질수록 그 폐해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어른들에 의해 청소년 음주가 알게 모르게 격려되고 있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

#### (2) 학교 상황

학교 상황에서 제시된 개념은 수학여행, 수련회이다. 학교는 청소년에게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장소이다(Busch-Rossnager and Vance, 1982). 학교는 기본적인 인지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규율에 대한 내적인 관습적인 가치를 배우고, 학교 경험을 통해 목적 지향적인 성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학교 영향이 청소년 음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시한 연구(Hawkins et al., 1992)와, 학교는 청소년의 음주나 약물 사용과 강력한 관계가 없다고 제시한 연구(Bahr, Maughan, Marcos, and Li, 1998)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련회나 수학여행과 같은 학교 외부에서 진행되는 행사 중에는 술이 승인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맞아요 수학여행 가서 다 먹어요**

**수련회 갔을 때요**

### (3) 또래 모임

또래 모임에서 제시된 개념은 동아리활동, 친목모임, 단합모임, 소개팅, 술파티, 생일, 여행, 시험 끝난 후, 연초나 연말, 크리스마스이다. 한성현과 한동우(2001)는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음주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커렌과 카즌(Curran and Chassin, 1997)은 청소년의 음주에 있어서 단순히 동료의 음주가 영향을 주기보다는 음주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시빙 등(Sieving et al., 2000)은 청소년의 음주 행위를 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음주를 하는 친구를 선택해서 음주를 하기보다는 친구가 음주를 함으로 술을 마시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나, 특별한 기념일을 자축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볼 때 시빙 등(2000)의 연구와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 단합 같은 것 한다고 먹구

소개팅 그런 거 했을 때, 처음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시험 끝나거나 크리스마스 때부터 연말 연초까지

### 4) 첫 음주 경험

청소년들의 첫 음주 경험은 음주 동기와 음주 장소로 범주화 되었다. 빠른 첫 음주는 청소년의 알코올 남용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공격성, 학업 실패, 비행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따라서 청소년 음주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기 음주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Kaplow et al., 2001).

#### (1) 음주동기

첫 음주 동기의 개념은 부모 권유, 할머니 권유, 선배 권유, 친구 모임, 놀러가서, 이성친구와 헤어짐, 호기심, 목마름, 친구 집에 술이 있어서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역할이 청소년의 초기 음주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 되며, 부모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청소년의 음주 행위가 증가한다(Barnes, Dintcheff, Farrell, and Reifman, 2000). 본 연구 결과,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나 조부모의 권유로 첫 음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초기 음주에 대한 부적절한 부모 역할을 발견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할머니댁에 가서 목이 너무 마른데 할머니가 권하셨어요. 일주일 있

었는데 계속 마셨어요

청소년들의 첫 음주는 선배 권유나 친구모임, 놀러가서 등과 같이 또래와 어울리는 상황에서도 나타났다.

**친구들이랑 아는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또한 이성친구와 헤어지거나, 호기심 때문에, 목이 마르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술이 있어서 마시는 것과 같은 상황도 보고되었다.

**(이성친구에게) 차였을 때**

**친구네 집에서 먹을 것 찾다가 냉장고 여니까 술병이 짝르륵 종류대로 있어서요**

(2) 음주장소

첫 음주 장소는 집, 할머니 집, 친구네 집, 수련회, 노래방, 공터, 빈집, 야외, 야영지, 술집으로 개념화 되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집이나 친구 집에서 첫 음주를 하게 된다는 것은 부모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이 일탈행동의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빈집은 선행연구에서 음주 장소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첫 음주를 하게 되는 주요 장소로 표현되었다.

**친구들이 술파티 한다고 친구집에서**

**빈집 같은 곳**

또한 공터, 야외에서 음주를 하고 있어 어른들의 감독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이용되며, 노래방이나 술집, 야영지, 수련회 장소 등에서 첫 음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공공장소 같은 개방적인 곳에서 처음 술을 접하게 되며 그 장소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른 학교 친구 만나서 기차길 옆 공터에서**

**술집에서 맥주 마셨어요**

**중1때 노래방에서 친구들이랑**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음주 관련 상황을 탐색하고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포커스집단을 활용하고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음주 관련 상황은 술 마시는 이유, 술 마시지 않는 이유, 음주 상황, 첫 음주 경험 등 4개의 상위 범주로 분류되었고, 16개의 하위 범주와 93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제시된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 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가족 영향, 또래 영향, 교사 영향, 술에 대한 사회적 태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기존의 양적연구에서 청소년 음주의 통제요인과 보호요인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부모요인이 높은 위험요인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가족모임에서 공공연하게 청소년 음주가 용인되는 가족 문화가 청소년이 술을 마시게 되는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양적연구들에서는 청소년 음주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음주를 승인하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상황이 청소년이 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듯, 어른에 의한 술심부름과 교사의 음주 권유는 청소년들의 음주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음주문화는 외국의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국내의 독특한 상황일 것이다.

둘째, 술을 마시게 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다. 그나마 부모감독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음주행위의 예방과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음주기대에 관한 연구들에서 미약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고 개인의 건강 상태, 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모감독, 경제적 상황, 술 구입의 어려움이라는 개념이 도출되었다. 새롭게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는 청소년들도 성인과 같이 개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술을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경우나 술 구입이 힘들 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음주행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청소년 음주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상황은 가족 상황, 학교 상황, 또래 모임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음주 동기나 음주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음주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논문은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음주상황을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행사가 청소년의 음주 행위를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를 통제하는 역할로서 강조되어온 학교가 청소년이 음주에 가담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에서의 음주교육이 필요한 이유

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첫 음주 경험은 음주 동기와 음주 장소를 중심으로 범주화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15세 이전에 첫 음주를 하는 경우, 21세 이후에 처음 술을 접하는 사람에 비해 알코올 의존이 4배 이상 증가한다(Grant, 1998). 본 연구 결과, 첫 음주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고2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은 중학교시기에 첫 음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첫 음주는 부모와 같은 유의미한 타자의 권유와 또래 모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양적 연구에서 음주장소로서 많이 제시하고 있는 술집에서 음주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집, 빈집, 공공장소 등 매우 다양한 곳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술집 출입을 규제하는 청소년 음주 예방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양적 통계 중심의 연구에서는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던 청소년 음주에 대한 국내의 독특한 음주 문화를 확인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밝혀진 결과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즉, 포커스집단 연구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음주 관련 상황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풍부하게 이끌어 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음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집단을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팀 전원이 연구계획에서 포커스집단 진행, 녹취, 자료 분석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구의 전문성과 효용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특히, 포커스집단을 진행한 주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분석을 직접 실시할 때 질적으로 우수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점(Krueger, 1998)에 있어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가족이나 학교 등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 환경 내에서 청소년 음주를 권유하거나 승인하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첫 음주 경험이 가족의 권유에 의해서 그리고 학교 외부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부모나 교사의 청소년 음주에 대한 승인과 제재가 개인별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청소년 음주는 부모 등 어른과 함께 할 때에는 허용되기도 하고, 또래끼리의 음주는 제재를 받으며, 학교 규정에서 음주 행위는 징계 사유이지만 수학여행 등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서는 허용되기도 하는 등 일관성 없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부모와 교사가 청소년 음주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나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자의 적절한 감독과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 문제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용석, 1999b; Webb et al., 2002). 아울러 청소년들이 성인의 음주 문화를 모델링 한다는 점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가 청소년 음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은 물론 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음주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셋째, 청소년들이 음주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실천적 지침을 제공한다. 본 연

구 결과, 청소년들은 어른에게 술 배우는 것은 좋은 것이고, 어른이 술을 권할 경우에는 마셔야 되며, 술 마시고 실수만 안 하면 술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술은 마약과 달리 중독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하는 등 청소년들이 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술을 사용하는 방법은 성격이나 취향과 같은 개인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개인이 속한 사회 전체가 음주에 대해서 갖는 가치나 규범 즉 음주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청소년들의 음주에 대한 신념과 지식은 우리나라의 관대하고 허용적인 음주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음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교육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술에 대한 잘못된 신념과 음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의 음주 행위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 확인되었다. 최근 들어, 청소년 음주의 저연령화, 법으로 금지된 청소년 음주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나 사회적 통제의 미약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경험할 때 해결 방법으로 음주를 선택하고 있고, 고학년이 될 수록 또래 모임에서 어울리기 위한 도구로서 음주를 이용하며 게임의 별칭으로까지 활용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음주와 술집 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술을 마실 수 있고 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 음주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은 성인에게 있어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의 빈집을 찾아서 술 마시는 곳으로 이용한다는 점은 사회적 통제의 부적절함을 극명히 보여준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친권자나 사회 구성원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음주나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제지와 선도의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술심부름을 시키고, 술을 판매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지 않은 이유로 가게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거나 술 구입에 실패했을 때라는 결과가 제시된 것으로 볼 때, 청소년 음주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술 구입이나 술집 출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과 보급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현장을 위한 실천적 함의로 제안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고등학생으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또래지도자 양성을 중심으로 소수 청소년 중심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전체 청소년 대상은 학교 축제 기간을 이용하여 하루 동안 진행되는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학급 단위로 4~8회기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의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은 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 청소년들은 기존의 일방적인 시청각 자료 중심의 교육을 비판하면서, 사례 중심의 실제적인 교육 내용과 소집단 중심의 토론, 질주 중심, 캠페인 등의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술로 인한 해악이나 폐해를 보여주는 충격요법도 청소년 음주 예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은 피상적인 내용 위주의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 내용과 청소년들이 음주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토론 중심의 교육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음주 예방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일회성, 단기성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학교 단위와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행과 효과성 검증,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청소년 음주는 그 사회의 음주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문교사연수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활동 수준은 미미한 실정이다. 청소년에게 중요한 타자인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며, 이들의 음주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음주예방프로그램이 선택적 차원이나 일부 상담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필수적 과정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포커스집단을 이용한 질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음주 관련 상황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국 음주 문화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 음주 상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포커스집단 연구방법이 도전받는 타당도와 신뢰성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팀은 여러 단계의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서 포커스집단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시도하였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달리 연구 결과를 다른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의 여부인 즉 이동 가능성(transferability)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속 연구에서의 적용을 위하여 본 연구 과정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입연구와 같은 경험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실천적인 청소년 음주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금희·박상학. 1996. "일부대학생들의 성격변인과 음주행동". 『조선대 의대 논문집』 21(1): 87-99.
- 김성재·김후자·이경자·이선옥. 2000.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서울: 현문사.
- 김영미. 2004. "미국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에 대한 심리사회적 보호변인과 위험변인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4): 269-289.
- 김용석. 1999a.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와 정신증상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7: 27-45.
- 김용석. 1999b.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음주와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39: 103-127.
- 김용석·김정우·김성천. 2001. "청소년 음주행위의 실태 및 변화와 관련 요인들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7: 71-106.
- 김용석·윤혜미. 2001. "중학생들의 음주기대와 음주기대 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44: 91-116.
- 김사라. 2002.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W시와 서울시 중학교 3학년생을 중심으로"

- 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현수·김현실. 2002. “한국청소년 음주 및 약물남용과 비행행동간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41(3): 472-485.
- 문화체육부. 2004. 『2004청소년백서』.
- 안경선. 1996.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음주기대에 대한 부모와 친구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윤혜미·김용식·장승욱. 1999.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38: 153-179.
- 장승욱. 2000. “청소년기 문제성 음주실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2: 372-396.
- 조성기. 2001.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음주청소년 특성조사 및 개선방안』.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 최정아. 1998. “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6: 151-178.
- 한성현·한동우. 2001. “청소년의 음주 관련요인 분석”.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7(2): 130-143.
- Baer, P. E., and J. H. Bray. 1999. "Adolescent Individuation and Alcohol Usag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3: 52-62.
- Bahr, S. J., S. L. Maughan, A. C. Marcos, and B. Li. 1998. "Family, Religiosity, and the Risk of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79-992.
- Barnes, G. M., B. A. Dintcheff, M. P. Farrell, and A. S. Reifman. 2000. "The Effects of Parenting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lcohol Misuse: A Six Wave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75-186.
- Basch, C. E. 1987. "Focus Group Interview: An Underutilized Research Technique for Improving Theory and Practice in Health Education." *Health Education* 14: 411-448.
- Bjarnason, T., B. Andersson, M. Chooquet, Z. Elekes, M. Morgan, and G. Rapinett. 2003. "Alcohol Culture,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Alcohol Use: Multilevel Modeling of Frequency of Heavy Drinking among 15-16 Year Old Students in 11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4: 200-208.
- Bray, I. H., G. J. Adams, J. G. Getz, and T. Stovall. 2001. "Interactive Effects of Individuation, Family Factors, and Stress on Adolescent Alcohol Us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1(4): 436-449.
- Busch-Rossnagel, N. A., and A. K. Vance. 1982. "The Impact of the Schools o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pp. 452-467. in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edited by B. B. Wolman, and G. Stricker.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Capko, J., and R. Anwar. 1998. "Six Steps to Conducting a Successful Focus Group." *Group Practice Journal* 47: 26-29.
- Costa, F. M., R. Jessor, and M. S. Turbin. 1999. "Transition into Adolescent Problem Drinking: The Role of Psychosoci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 480-490.
- Curran, P. J., E. Stice, and L. Chassin. 1997.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 Use and Peer Alcohol Use: A Longitudinal Random Coefficients Model." *Journal of*



-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1): 130-140.
- Dielman, T. E. 1994. "School-based Research on the Prevention of Adolescent alcohol use and misuse: Methodological Issues and Advances." *Journal of Res Adol* 4(2): 271-293.
- Dielman, T. E., J. T. Shope, and A. T. Butchart. 1989. "Differential Effectiveness of an Elementary School-based Alcohol Misuse Prevention Program." *Journal of School Health* 59(6): 255-263.
- Emery, E. M., G. P. Ritter-Randolph, A. L. Strozier, and R. J. McDermott. 1993.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to Identify Salient Issues Concerning College Students' Alcohol Abuse."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1: 195-198.
- Ford, R. C., S. A. Bach, and M. D. Fottler. 1997. "Methods of Measuring Patient Satisfaction in Health Care Organizations." *Health Care Management Review* 22: 74-89.
- Glaser, B., and A. Strauss.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 Grant, B. F. 1998. "The Impact of a Family History of Alcoho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t Onset of Alcohol Use and DSM-IV Alcohol Dependence: Results for the National Longitudinal Alcohol Epidemiologic Survey."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22: [페이지](#).
- Griffin, K. W., G. J. Botvin, L. M. Scheier, and N. L. Miller. 2000. "Parenting Practices as Predictors of Substance Use, Delinquency, and Aggression Among Urban Minority Youth: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Gender."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4: 174-184.
- Hawkins, J. D., R. F. Catalano, and J. Y. Miller.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64-105.
- Hundleby, J. D., and G. W. Mercer. 1987. "Family and Friends as Social Environment and Their Relationship to Young Adolescents' Use of Alcohol, Tobacco, and Marijuan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51-164.
- Kaplow, J. B., P. J. Curran, A. Angold, and E. J. Costello. 2001. "The Prospective Relation Between Dimensions of Anxiety and the Initiation of Adolescent Alcohol U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3): 316-326.
- Krueger, R. 1994. *Focus Group Interview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CA: SAGE Publication, Inc.
- Krueger, R. 1998. *Analyzing and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 The Focus Group Kit 6. CA: SAGE Publication, Inc.
- Lonczak, H. S., B. Huang, R. F. Catalano, D. Hawkins, K. G. Hill, R. D. Abbott, J. A. M. Ryan, and R. Kosterman. 2001. "The Social Predictors of Adolescent Alcohol Misuse: A Test of the Social Development Model." *Journal of Studies Alcohol* March: 179-189.

- Makini, Jr., G. K., E. S. Hishinuma, S. P. Kim, B. S. Carlton, R. H. Miyamoto, L. B. Nahulu, R. C. Johnson, N. N. Andrade, S. T. Nishimura, and I. R. N. Else. 2001. "Risk and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Native Hawaiian Adolescent Alcohol Use." *Alcohol and Alcoholism* 36(3): 235-242.
- Mason, W. A., and M. Windle. 2000. "Family, Religious, School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Alcohol Us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 44-53.
- McDermott, D. 1984. "The Relationship of Parent Drug Use and Parents' Attitude Concerning Adolescent Drug Use to Adolescent Drug Use." *Adolescence* 19: 89-97.
- Morgan, D. L.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 The Focus Group Kit 1. CA: SAGE Publication, Inc.
- Patter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CA: SAGE Publication, Inc.
- Scheier, L. M., and G. J. Botvin. 1998. "Relations of Social Skills, Personal Competence, and Adolescent Alcohol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8(1): 77-114.
- Schulenberg J., P. M. O'Malley, J. G. Bachman, K. N. Wadsworth, and L. D. Johnston. 1996. "Getting Drunk and Growing up: Trajectory of Frequent binge Drinking During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7(3): 289-304.
- Shope, J. T., D. D., Kloska, T. E. Dielman, and R. Maharg. 1994. "Longitudinal Evaluation of an Enhanced Alcohol Misuse Prevention Study(AMPS) Curriculum for Grades Six-Eight." *Journal of School Health* 64(4): 160-166.
- Sieving, R. E., C. L. Perry, and C. L. Williams. 2000. "Do Friendships Change Behaviors, or Do Behaviors Change Friendships? Examining Paths of Influence in Young Adolescent's Alcohol Us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6: 27-35.
- Stewart, D. W., and P. N. Shamdasani. 1990. *Focus Groups: Theory and Practice*. CA: SAGE Publication, Inc.
- Stice, E., M. Barrera, Jr., and L. Chassin. 1998. "Prospective Differential Prediction of Adolescent Alcohol Use and Problem Use: Examining the Mechanisms of Effec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4): 616-628.
- Strauss, A., and J.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Publication, Inc.
- Webb, J. A., I. H. Bray, J. G. Getz, and G. Adams. 2002. "Gender, Perceived Parental Monitoring, and Behavioral Adjustment: Influences on Adolescent Alcohol Us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2(3): 392-400.
- Windle, M. 1999.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Thousand Oaks, CA: Sage.
- Wynn, S. R., J. Schulenberg, D. D. Kloska, and V. B. Laetz. 1997. "The Mediating Influence of Refusal Skill in Preventing Adolescent Alcohol Misuse." *Journal of School Health* 67: 390-396.
- Zuckerman, M. 1987. "Biological Connection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Drug

Abuse." pp. 165-176. in *Brain Reward Systems and Abuse*, edited by J. Engel, and L. Orelund. New York: Raven Press.

## The Study on the Focus Group of Adolescent Alcohol Use

Lee, Si-Yeon

(Seoul Jangsin University)

Choi, Youn-Jung

(Kwangju University)

Kwon, Hyun-Jin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alcohol use situation among adolescents and provides information relevant to development of adequate prevention programs for adolescent alcohol use in Korea. In this study, we used focus group research method and analyzed the outcome with constant comparison method.

We classified 4 major categories of adolescent alcohol use situation such as the factors on enhancing alcohol use, the factors on delaying alcohol use, the occasions significantly related to alcohol use and the first alcohol use experience of adolescent. And we found out 16 minor categories and 93 concepts under the major categories.

The results from the study revealed that the factors on enhancing alcohol use were associated with adolescents' psychological reasons, their positive perceptions on alcohol, family factors, peer influences, teacher's influences and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n alcohol in general. The factors on delaying alcohol use were associated with health conditions, their negative perceptions on alcohol, parental monitoring, economic reasons and their limited access to purchase alcohol. The occasions significantly related to adolescent alcohol use were family events, school events and peer gatherings. In addition, the first adolescent alcohol use experience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eer influences and significant adults' offer of alcohol.

Findings suggest recommenda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adolescent alcohol use in Korea.

Key words: adolescent alcohol use prevention, alcohol use situation, focus group.

[논문접수일 2005. 8. 30. 게재확정일 2006. 1. 26]